미세먼지 공포, 저소득층은 '속수무책'

1000원 마스크도 못 사고 무방비 노출…건강 빈부 격차 심화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시급…북구 전국 첫 마스크 2만개 지원

주부 김선경(31·광산구 신창동)씨는 최근 마트를 방문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려다 가격을 보고 멈칫했다.

이른바 미세먼지를 90% 이상 막아준다는 고기능 미세먼지 마스크가 1장에 1500~2000원이나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들었다 놨다하며 몇 번을 고민 한 끝에 장당 200원짜리 일반 마스크 10매를 구매했다.

김씨는 "유치원생인 딸(7)과 아들(5)의 건강을 위해선 90% 이상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고기능성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돼 사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안영희(여·39·북구 중흥동)씨는 최근 공기청정기 구매를 포기했다. 가격이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성능이 뛰어난 100만원대 제품을 구입하고 싶지만, 6개월~1년 마다 10여만원을 주고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에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

안씨는 "공기청정기를 사야 하는데 저렴한 제품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하고, 고성능 제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필터 교체비용만 1년에 10만원씩 하더라"면서 "다른 엄마들은 옷에 먼지를 없앤다며 수백만원씩 하는 '스타일러'와 '건조기' 등도 구입하던데, (공기청정기 조차 사지 못해)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부터 15일째 미세먼지가 광주를 뒤덮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스스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이른바 미세먼지 '각자도생(各自圖生·제 각기 살길을 도모함)'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과 노인들은 공기청정기는커녕 마스크도 쓰지 못한 채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미세먼지마저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북구청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마스크 2만개를 저소득층 주민에게 긴급 배포하고 향후 추가 지급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정부나 타 자치단체에선 도로 물뿌리기 등 기존 대책만 반복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고기능성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물론 의류건조기, 옷먼지 등을 제거하는 고가의 의류관리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1000원짜리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사치품일 뿐이다. 미세먼지에 약한 아동과 노인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12세 미만)은 8282명, 노인(65세 이상)은 1만7473명으로 2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배포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취약계층 가정아동과 어르신들이 마스크 구입 비용이 없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면서 "특히 아이들 건강 문제만큼은 빈부의 격차가 있어선 안된다. 구의회와 함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진 6일 광주시 북구 근로자복지관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재계약 빌미 경비원에 금품 받고 '갑질'
광주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조사
식료품 배달 강요까지

아파트 대표회장이 재계약을 빌미로 70대 경비원의 현금을 뜯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6일 "입주자 대표회장 지위를 이용해 경비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A(여·66)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구 운암동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던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경비원 B(76)씨를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A씨의 악행을 견디지 못한 B씨는 2018년 6월 중순께 사직했다. A씨도 이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소문이 아파트 내에 확산되자, 지난해 10월 말 아파트 대표회장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마트 외상 값을 대납토록 하고, '마트에서 반찬·술·식료품 등을 구입해 자택으로 배달해달라'고 강요하거나 그림(30만원 상당의 산수화)과 소고기 등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빌린 것을 아직 갚지 못한 것 뿐"이라며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경비원에게도 비슷한 갑질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B씨 외엔 모두들 경비원 업무를 맡고 있어 추가피해 등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상인·경비원 등 주변인의 증언 내용과 대질신문 등을 통해 추가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한콘진 압수수색
직원 뇌물 혐의수사

검찰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이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6일 오전 나주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이 직원은 간부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정부 사업 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대상 직원과 관련한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징계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급여 아닌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추가 부과 첫 합헌 결정

급여 말고도 이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늘어나는 반면 이들이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모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른 학원생 착각 태우려한 학원버스기사 감금미수 적용?

쌍나팔

○… 자신이 태워야 할 학원생으로 착각해 다른 학원의 여중생을 버스에 태우려 한 70대 어학원 버스기사가 경찰서행.

○…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74)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중학생 B(15)양을 자신이 운전하는 25인승 버스에 강제(?)로 태우려했다는 것.

○…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학원 가방과 색상 등이 비슷한 B양의 가방을 보고 착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원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B양에게 버스 탑승을 권유한 듯 하다"면서 "감금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최악 미세먼지에 눈 질환 호소 급증
안구건조증 등 30여% 늘어

광주·전남지역에 역대 최장기간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되면서 알레르기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등 눈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신세계안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5일까지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 건수는 총 1만30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34건 대비 32%나 증가했다. 2017년 8953건과 비교하면 46%나 늘었다.

이는 미세먼지의 인체 침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마스크를 쓰더라도 눈은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간지럽고, 손으로 비비면 붓거나 아픈 환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안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진료는 물론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는 환자도 많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외출한 후엔 눈 표면에 묻은 먼지를 떼어내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공눈물약을 수시로 넣어주면 안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또 수시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 손으로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렵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구속 송치

여수해경은 6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 시킨 박모(50)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직포 선착장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광주일보 2019년 1월 2일자 6면> 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차와 함께 바다에 떨어진 김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며 해경 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끝내 숨졌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점, 뒷좌석 창문이 7㎝정도 내려진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경은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해경조사결과 박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김씨와 재혼했으며, 교제 중이던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6개를 잇따라 가입하고 혼인 신고 뒤 보험금 수령자를 본인으로 변경했다. 사망시 보험금 총액은 17억 5000만원이나 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일주일 전 박씨가 아내 김씨와 함께 금오도를 방문해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國家公認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

NPL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 . .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사창리 대지 268㎡ 조용한생활적합 3천만원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저수지 접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5223㎡ 투자에 최적 금고 5천 매도1억2천5백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영업잘됨 임대중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답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음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룸·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음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나주 금천면 면사무소 인근 땅 704㎡ 상가주택 211㎡ 5억5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정읍 신태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가역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12억 5천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오피스텔 급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 전체올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보장
■ 즉시입주가능,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 1억2천만원
급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